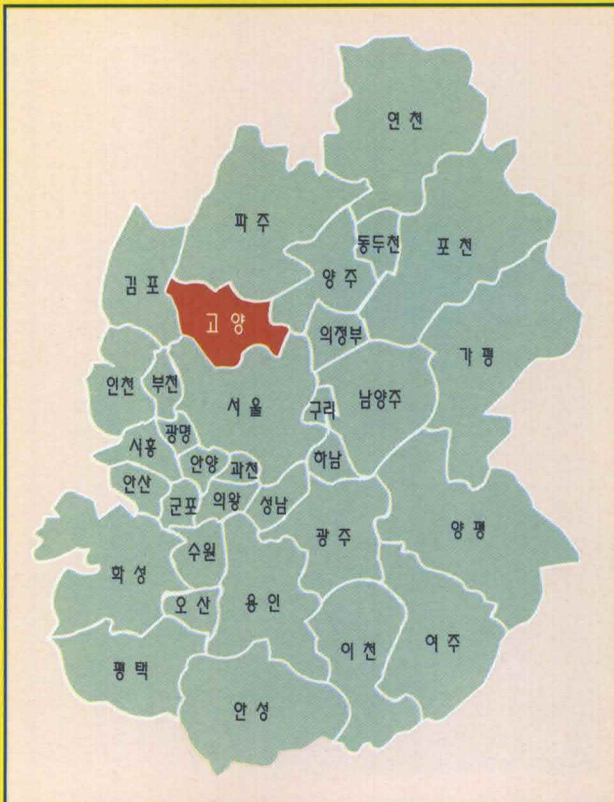


# 고양시

진발 두레패 농악

호미걸이

용구재 이무기제



# 진밭 두레패 농악

## 1. 전승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진밭마을

## 2. 유래 및 해설

진밭은 옛 벽제읍 성석1리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이곳의 촌락사람들이 농악대

를 정식으로 조직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19년 일제치하에서였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악대가 조직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고래로 부터 농악과 그 모태로서 두레라고 하는 농업공동체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예전부터 농악과 두레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선조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상당수의 지역에서 농악과



두레가 변질·소멸되었으므로 이곳 진밭에서도 농악이 잠시동안 소멸되었다가 1919년에 재조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밭 두레패의 농악대가 조직된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농악과 두레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해체시키고자 했던 바, 진밭 두레패 농악대의 조직은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때 구성된 농악대는 오늘날까지 그 조직을 보존시켜와 지금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민속예술공연단으로서의 성가를 얻고 있으니, 해방 이후 전국농악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63년의 5.16군사혁명 2주년 기념대회와 1964년의 6.25동란 14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당당히 우승하는 등 각종 민속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했음은 물론 군내에서도 각종 행사때면 어김없이 초청을 받아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진밭 두레패의 농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악의 놀이모습만이 아니라 두레패 농악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는 두레 공동체의 성격과 발전과정·두레와 농악의 상관관계·농악의 사회적 기능 등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진밭 두레패 농악의 놀이형태와 그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 3. 구성 및 줄거리

진밭 두레패 농악대는 영농작업기에 행하

는 본농악(本農樂)으로서 12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으며, 호미씻이 때에 행하는 풍년놀이로서 8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농악의 가락으로는 1채가락에서부터 12채가락까지, 또한 각종 변형가락을 갖추고 있다.

그 중 1·2·3·채가락은 춤가락이며 자진모리가락에서 율동을 한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본농악에는 소(牛)와 농기구를 사용했으나 점차 사라져버렸고, 현재는 춤과 율동만이 남아 있다.

본농악(혹은 영농놀이, 농사놀이)은 봄에 가래질 할 때, 못자리 범씨 뿌릴 때, 모를 찢을 때, 모내기할 때, 콩을 심을 때, 김을 맬 때, 퇴비를 만들 때, 가마를 짤 때, 벼를 벨 때, 탈곡을 할 때 행하는 농악이다.

풍년놀이는 추수가 끝난 후 호미씻이 때에 행하는 것으로서 그 놀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 1) 오방진(五方陣: 멍석감기와 풀기)

농악대가 놀이판의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돌아다니다가, 상쇠를 한가운데 놓고 원을 그리며 겹겹이 돈 후 다시 원을 푸는 것을 몇 차례 되풀이한다. 마지막에는 중앙에 진을 치는데, 이로써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에 진을 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2) 군사놀이

농악대가 영종대로 서서 행진하다가 그 앞열은 좌로 3보, 그 뒷열은 우로 3보로 대열을 변형, 그 후 3방향, 6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행진하다가 다시 본대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당상벽구놀이

풍물잡이들 주어에서 법고(벽구)잡이를 상

대로 범고늘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통백이놀이

농악대가 동서로 뉘어서, 범고잡이와 그밖의 풍물잡이들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다가, 두 개의 원형을 만들어 사방으로 돌면서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5) 좌우치기놀이

범고잡이와 그밖의 풍물잡이들이 각각 1열로 행진하면서 좌우로 1보씩 움직이다가 6채가락에 맞추어 노는 것을 말한다.

#### 6) 거상가락놀이

거상가락이란 느린 가락으로서 농악대에 참가하지 않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 가락에 맞춰 어울려서 춤추고 노는 것을 말한다.

#### 7) 3채가락에 춤추기

거상가락에 흥이 나면 장고잡이와 날라리잡이가 3채가락을 치고 상쇠가 선(先)소리를 선창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 복창하면서 풍년가(豊年歌)를 부른다. 노래와 함께 흥겨운 품을 추면서 한바탕 어우러진다. ⑧ 열두발 상모놀이: 마지막 마당씻기에 해당하는 놀이판으로, 채상잡이(범고잡이 중에서 마지막 사람)가 열두발이나 되는 부전지를 붙인 상모를 서서 돌리거나 앉아서 돌리거나 누워서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8마당놀이가 진발 두레패 농악대가 벌이는 풍년놀이 한마당이다.

고양시 성석동의 진발 두레패 농악대는 옛 송포면 대화리 호미걸이와 함께 전통적인 농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농악대이다. 그러나 현재 농악대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인

물들이 연로한 까닭에 이들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층의 관심과 군내의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출연인원(1984년)

- 발굴 및 지도 : 고양문화원
- 지 휘 : 어한(魚漢)

부 서	성 명	연 령	부 서	성 명	연 령
기수(대)	김문인	36세	범고(범구)	안순복	37세
상 쇠	신전희	67세	"	박재우	33세
부 쇠	이한식	54세	"	김기영	36세
장 북	차인동	60세	"	박현용	20세
북	김병철	42세	"	조태경	22세
북	이재완	39세	"	이호정	22세
장 고	신유희	45세	"	이승희	30세
장 고	이건희	64세	"	윤영식	36세
제 금	이정하	57세	"	조영선	47세
호 적	이원희	64세	"	박무식	41세
호 적	신현익	44세	"	김수경	33세
상범고(범구)	김현우	56세	광대놀이꾼	김수연	53세
범고(범구)	박재영	37세	"	최명천	47세
"	신춘희	41세	"	이정희	46세
"	차용복	30세	"	이재용	49세
"	이계희	42세	"		

여기에서 기수(대)는 농기를 든 사람을 말하며, 영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은 소고를 말한다. 그리고 진발 두레패 농악대의 특징은 제금이 있다는 점과 범고(범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이다. 제금이란 늦쇠로 남비 뚜껑 비슷하게 만들어 복판에 끈을 꿰어 두 손에 들고 마주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자바라(#)의 일종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농악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 호미걸이

## 1. 전승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뱀개마을

## 2. 유래 및 예설

‘호미걸이’는 ‘호미씻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김을 매고 난 뒤 금년 농사가 끝났으니

내년에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 호미걸이는 지방에 따라 낱알이 공굴(共屈)·공회(公會)·백중놀이·두레놀이·머슴놀이·술메기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우는데 대체로 음력 7월 칠석이나 7월 15일의 백중을 전후해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미걸이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과 같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사가 기후가 순조로와 결실을 잘하여 풍년



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의미와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피로해진 몸을 쉬며 노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호미걸이 행사는 농악을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된다. 이때의 농악은 두레의 공동과정에서의 농악보다 확대된 것으로서 여러 두레가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이 호미걸이 행사는 두레꾼들만의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음식을 먹고 즐기는 잔치의 성격을 띤 것이다.

이 호미걸이 놀이는 전국의 농촌에 두루 존재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물결이 농촌까지 밀어닥쳐 다른 전통놀이들과 함께 하나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호미걸이는 1985년도 경기도내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차지, 전승(傳承)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호미걸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대략 60여 년 전까지 행하여지던 것이다. 60여 년 전이라면 1920년대로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 자주독립의 기운이 고양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하는 두레패의 호미걸이 농악이 이어졌다는 것은 민족운동의 측면으로 보아도 진발 두레패의 농악조직과 더불어 의의있는 일이다.

대화동 범개마을은 한강 하류 넓은 벌판 중심부의 야산 기슭에 형성된 촌락으로서 금서(金西)·금동(金東)·양촌(陽村)의 몇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지세로 보아 1932년 한강 제방이 축조되기 전까지는 매년 여름 주기적으로 몰려오는 한강 범람의 자연 재해로 인하여 공들여 지은 농사

가 못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재난을 인력으로 어쩔 수 없어 신(神)에게 이를 막아 주도록 기원하는 민속이 발생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또한 농사일이란 사람의 직접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고달픈 일이다. 한여름 동안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한 놀이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방의 호미걸이도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풍년을 기원하고 하루를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다.

논농사는 두벌 김을 매고 나면 더 손볼 것이 없고 이때쯤이면 우기(雨期)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벌 김이 끝날 무렵 두레패의 조사에 의해 올 농사는 우순 풍조(雨順風調)하여 풍년이 예상되니 앞으로 자연의 재해를 막아서 풍년이 되도록 기원하고 심신의 피로도 덜 겸 호미걸이를 하자고 발의하게 된다.

조사의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두레패 영좌는 두레패 모두의 의견을 물은 다음 합의가 되면 두벌 김을 모두 마치고 전체 대동회의(大同會議)에 부의(附議)하고 7월 칠석을 전후한 날을 택일해서 호미걸이를 하게 된다. 호미걸이를 하기 위한 기구와 음식의 준비는 온 동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에 맞도록 분담해서 마련하게 된다.

### 3. 구성 및 줄거리

호미걸이는 상산제(上山祭)·대동(大同)고사·대동(大同)놀이·유가제(遊街祭)의 순으로 진행된다.

## 1) 상산제

상산제란 마을의 대표가 그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인 도당신(都堂神)에게 풍년을 기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동리 중심에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 있는데 이를 도당산(都堂山)이라 부른다. 이 도당산에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제일 큰 소나무를 도당나무로 정하고 그 앞에 제상(祭床)을 차려 놓고 동리에서 제일 어른되는 사람이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로써 호미걸이 행사가 시작된다.

## 2) 대동고사

이것은 아낙네들이 함께 가내와 동리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여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즉 상산제를 지내고 놀이마당으로 내려오면 부녀자들이 음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드리는데 입심 좋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덕담을 하고 아낙네들은 모두 함께 합장을 하고 반절을 하며 풍년과 무사하기를 빈다.

## 3) 대동 놀이

아낙네들의 고사가 끝나면 대동 놀이가 시작된다. 대동 놀이는 초청된 이웃 두레패를 맞이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원래 금동·금서·양촌의 두레패는 이 부근 두레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구두레라고 한다. 두레패는 연조(年條)의 선후를 매우 존중하는 풍습이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만나게 되면 선배 두레패의 기(旗)에 절을 하여야 한다. 초청한 두레패를 맞이하는 의식도 선배 두레패인 구두레의 기에 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청된 두레패가 농악을 올리면서 구두레의 기를 향해 온절을

하면 구두레의 기는 반절로서 답례한다. 이것을 기 절받기라고 한다.

기절받기가 끝나면 그해의 기수(旗手)를 선발한다. 기수는 자천 타천(自薦他薦)으로 추천되어 힘자랑을 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기수로 선발된다.

그해의 기수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필목(正木) 등의 상품이 주어진다. 상품으로 받은 필목을 풀어헤쳐 몸에 감으면서 춤을 추고, 깃대를 손바닥 어깨 등에 올려 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기 쓰기 등도 하는데, 이것을 깃대 재주부리기라고 한다. 그리고 종기 놀리기, 조사 놀리기 등 온갖 재주를 부린다.

그런 다음 무등타기를 하고 명석으로 짜서 만든 소가 등장하면서 호미걸이 소리가 불리어지고 온동리 사람들이 모두 어우러 춤마당을 이루면서 흥을 돋구어 대동 놀이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호미걸이 소리는 열 가지 가락으로 다른 지방의 소리와 비교해서 특색이 있다. 긴소리·사두어·양산도·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놀놀이·자진놀놀이·상사되야·훅훅이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몸돌려 가락으로 맺는다.

## 4) 유가제

두레패가 농악을 올리면서 집집마다 도는 것을 말한다. 유가(遊街)는 조선시대 과거급제자들이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선배·친척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하는데, 유가제란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대동놀이가 끝나면 두레패가 떼를 지어 농악을 올리면서 집집마다 돌며 가내의 무사태평을 빌면 집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동리 집을 다 돌고 나면 호미걸이 놀이는 막을 내리게 된다.

#### 4. 구 성(1985년)

- 발굴 : 고양문화원
- 지도 : 김현규
- 인원 : 40~100명

##### ■ 단원명단

부 서	성 명	부 서	성 명
상 식	김동관	제 금	김철규
"	김영규	"	이순의
부 식	김중규	징	김학성
"	김화규	"	박홍열
장 고	김신규	영 기	이신자
"	김차연	"	한명자
복	김호권 회장	"	오금순
"	김희규	"	김정자
벽구	김돌규	"	김순이
"	김현중	"	박길자
"	김송규(집사)	"	김진수
"	박영준	"	김진원
"	김진재	"	김부규
"	김이락	"	김광일
"	김상규	"	김중구
"	김현규	마 부	김형모
"	김이규	맨손춤	박영자
호 적	김양원	"	김재익
"	이신현	"	안인자
"	김향규	"	강찬순
기 수(대)	김상기	"	염준자
"	김대규	"	정남순
"	김진구	"	김명숙
중 기	김영돈	"	차경예
"	김영규	"	유수례
"	김호연	"	송연옥
"	김창연	"	이옥자
"	김계규	"	지맹숙
"	김중규	"	김형진



# 용구재이무기제

## 1. 전승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개간 마을, 내촌 마을

## 2. 유래 및 해설

용구재 이무기제가 전승되고 있는 대화동 지역은 보통 뱀개와 사포가 잇던 곳으로, 일

산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백년 전에 이주한 금녕김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알려져온 곳이다. 이 곳은 낮은 구릉성 산지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앞쪽에 넓은 벌판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 마을 앞의 평야는 옛부터 일산쌀로 유명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밭농사는 거의 하지 않고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부근에는 대화초등학교가 유일한 교육기관



으로,중고등학교는 시장이 있는 일산을 이용한다. 옛부터 대화동 사람들은 힘이 세고 건강하며 성격이 역세기로 소문이 나 있다.

이 마을은 1934년 한강 제방이 쌓여지기 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였으며 호우로 인한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에서 마을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민간신앙적 민속놀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산 신도시 개발로 옛모습은 거의 볼 수 없으며 전래되고 있는 네 가지 놀이들도 그 전승이 불투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용구재 이무기제는 고양시 대화동 개간마을,내촌 마을에서 수백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제사,공동 축제로서 용구재(峴)고개에서 이무기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생긴 명칭이다.

한강에 제방이 쌓여지기 이전부터 강물이 자주 들어오는 용구재란 자그마한 고개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큰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 전해져오는 전설에 의하면 용구재 아래에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이 곳에는 용이 되기 위해 도를 닦던 지네가 물에서 천년, 돌에서 천년, 흙에서 천년, 도합 삼천년 동안 도를 닦아야 용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흙에서의 천년을 3일 남기고 대화동 마을 사람의 실수와 부정으로 용이 되지 못하게 되니 큰 이무기로 변하여 마을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 후 마을에는 용이 못 된 이 이무기가 심사를 부리면 한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에 질병이 돌며 흉년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용서를 빌고 달래기 위해 이무기가 사는 웅덩이가 잘 보이는 용구

재 언덕 마루에 올라 이무기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다.

### 3. 구성 및 줄거리

#### 1) 이무기 만들기

이무기는 반드시 마을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하는데 각기 성이 다른 5명이 꼭 한밤중에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무기의 모습은 말의 머리,사슴뿔,뱀의 몸으로 나누어서 만드는데, 각 부재의 재료는 대나무로 하고 이무기의 겉은 섬거적으로 하게 된다.

#### 2) 제 지내기

이무기가 다 만들어지면 당(堂)이 설치된 용구재에 안치한 후 마을의 연배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제관이 모여서 제를 지낸다.

이때 제관들은 황의(黃衣)를 입는 것이 일반인 참가자들과 다르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무녀,악사,제관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제에 사용되는 제물로는,마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계라 하여 산닭과 제웅을 만들어서 백기에 매달고 제당에 차려놓는다.

제를 지낼때는 마을에서 이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축문을 준비하게 하고 축문을 읽게 한다.

#### 3) 이무기 돌기

이무기 돌기는 이무기 제사가 끝난 후 마을의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풍물을 치며 이무기와 제웅, 명다리를 들고 마을의 큰 대갓집을 돌며 춤을 추는 것이다.

이때 집주인은 갖은 음식을 차려놓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며 일행은 한 집이 끝나면 또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 4) 이무기 놀리기

이무기 놀리기는 이무기 돌기가 끝난후 이무기를 장광틀 위에 얹어서 장광틀꾼들이 모두 메고 이무기 놀리기를 시작한다.

장광틀 위에는 새해에 흥액이 있는 사람들 모두 태우고 행렬 앞에 있는 용구새와 썩은 새를 불태우며 넘어간다.

이때 장광틀 위에는 흥액이 있는 마을 사람과 무녀가 올라가며 생닭을 잡아 이무기의 입속으로 집어넣는다.(대수대명)

이때 마을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이무기를 맞아 돌며 신나게 논다.

#### 5) 이무기 모시기

이무기 모시기는,이무기 놀리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과 아녀자들이 모두 나와서 장광틀에 올려놓은 이무기를 강구재로 옮겨 모시는 것이다.

강구재는 본래 김서부락의 모퉁이로,이곳은 옛날에 조그마한 야산이었으며 한강물과 맞닿아 있던 곳이다. 이곳은 옛부터 이무기가 길을 내서 통과했다는 구령목인데, 구령목은 산을 갈라서 길을 만든 골목과 같은 긴 길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이무기를 안치하고 이무기를 모셔갈 선가(善家)를 기다린다.

#### 6) 이무기 출해(보내기)

이무기를 마을에 안치하고 있다가 한강을 통해 황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이 이무기를 가져가면 아주 장사가 잘된다고 하여 이 이무기를 큰 중선배에 싣고 가다가 황해가 위

험한 곳에다 띄어보내게 된다.

이무기를 배에 싣기 전에 이무기 장광틀에 꽃혀진 명다리 기를 배 위에 올려 선원들이 배에 꽃으며 기 꽃기가 모두 끝나면 모두 힘을 모아 이무기를 배 위로 엮는다.이무기가 배 위에 안전하게 모셔지면 서서히 황해바다로 출해가 시작되고 이때 마을사람들은 큰 절을 올리고 마을의 평안, 질병 예방, 이무기에게 용서를 비는 동작이 계속 이어진다.

#### 7) 뒷풀이

이무기 출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술과 음식을 먹어가며 밤새 놀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제가 모두 끝나는 것이다.

### 4. 구 성

- 출연인원 : 120명
- 소요시간 : 30분 ~ 1시간
- 소요품목 : 120명
 

-장광틀 : 2개	-연추대 : 12개
·길 이 : 15자	·길 이 : 170자
·직 경 : 7인치, 2개	·직 경 : 2치
-배 : 1척	-대나무 : 100개
·가 로 : 13M	·길 이 : 7
·세 로 : 3.5M	-차 일 : 4개
-박다워 : 4개	-닭 : 20마리
-제 상 : 2개	-정 목 : 10필
-제 응 : 30개	-농 기 : 2개
-농재기 : 2벌	-풍물북 일절
-가 사	-고 깔
-짚 신	-제기그릇 일절

## ■ 놀이패의 구성

부 서	성 명			
부 식	이한식			
제 금	이의순	김현우		
복	이재환	박상준		
장 고	이건희	이재봉	김정희	
장	이계희	김기영		
제 관	김형규	김동국	김계규	
축 관	주명수			
상벽구(법고)	박재영			
벽구(법고)	박망내	기연복	임순이	이숙자
	김길자	정기용	박재우	
벽구(법고)	윤영식	김재식	최명천	박영기
	이정희	이재우	정준섭	황정숙
	최태문	신현각		
길라잡이	김충규	정동일	김부규	
마을사람	조종환	이양복	허성무	
뱃 사 람	노보성	김석규	최진완	이동환
	이원재	우상길	이근덕	
뱃 사 람	설동만	김형모	김승규	김형호
기 수	김문연	김광일	이성표	
이무기틀꾼	김현중	김영길	이상옥	이송식
	김경직	김상수	이운례	이갑순
	김우희	박영준	정춘자	김진수
	이기락	김명숙	김규명	김형질
	김형근	조점순	이상구	우정진
	노재설	양재진	방상설	조윤경
	이한철	야봉훈	최형식	최귀복
	강만복	정한학	이수대	김은진
	이순례	정기문	김동옥	박용옥
	이순애	조하옥	이동분	원명자
	심덕순	김순덕	이익재	김미경
	박언년	황신희	엄기숙	임경옥
	김상희	이준희	이각	이용규
	김현수	최명철		
십이지신	김순자	김차연	박영자	이옥자
	김중규	김학성	김진원	김인경
	우상길	신금례	정춘자	오금순
무 녀	정정자			

## 5. 의 의

용구재 이무기제는 수백년 전부터 전승되어 온 놀이로 무엇보다도 80여 년이 넘게 시연을 하지 못하다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송포 대화동 지역이 일부 일산 신도시로 편입되어 그 본존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현이 이루어져 펴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용구재 이무기제는 마을의 공동체적 축제와 함께 온마을이 하나가 되어 공동 제사를 올리는 특이한 민속놀이이다.

놀이는 마을 뒤편에 이르기까지는 경건한 마음 숙연된 태도로 놀이에 참가하다가 제를 지낸 뒤 배에 이무기를 실어 보내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변하여 흥겨운 마을 축제를 벌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고양시가 경기도의 내륙지방에 위치하면서도 농촌, 어촌의 형태가 결합된 아주 특이한 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에 참가하는 십이지신상은 놀이의 구성을 좀더 알차게 채우고 있으며 온마을 사람의 기원, 축원을 이무기에게 집중시키고 이무기 출해로 그 절정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준다.

